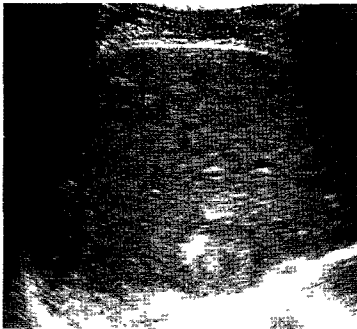




위장 클리닉 - 궤양과 암

‘만 성 위궤양이 급기야 암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리 한 공포를 지니고 있는 사



초음파 사진
2.5센티미터 직경의 간세포암이 간우엽에서 보임

람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궤양과 암은 상관 관계가 없다. 20여 년 전까지는 만성 위궤양이 암이 된다는 의견이 의학학회에서도 다수를 차지했다. 주로 외과적인 절제 표본의 조직을 보고 그러한 판정을 하였다. 즉, 절제한 위암의 조직상을 보면 충분한 반흔(癍痕) 조직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테두리에 남은 암 조직이 있다고 하는 설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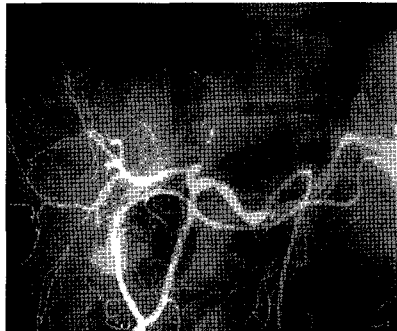
또한 암은 한번 발생하면 상당히 빨리 악화하지만, 소화성 궤양은 만성화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소화성 궤양 쪽이 먼저 발생하고 그것이 암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임상 사례가 학계에 자주 보고되었다. 다음 증상 사례는 조기 위암연구회에 발표되어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위 카메라 검사로 지름 3센티미터 정도의 둥글게 변색한 점막 속에 불규칙한 마름모꼴로 궤양을 지닌 병의 변형, 즉 암 세포인 듯한 것을 지닌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는 신경질이 잦은 사람이었는데 2~3주간 계속 위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가 수술을 권했지만 반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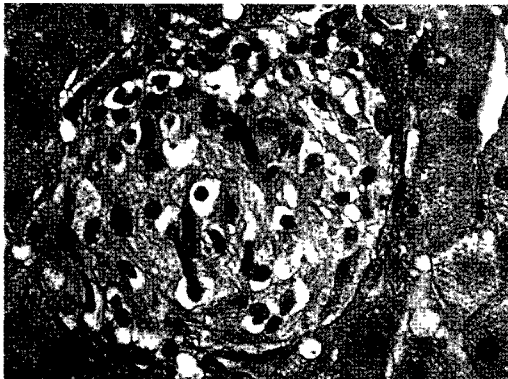
고, 2개월 동안이나 병원에 오지도 않았다. 담당 의사는 그 환자를 다시 불러 “수술을



간동맥 조영촬영사진
간우엽 하부에 혈관만을 간암종양이 선명하게 보임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에 걸쳐 위궤양의 예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위궤양 환자에게서 발생한 위암의 수는 보통 건강한 사람의 암 발생률과 전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이 발생한 사람도 위궤양 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받고 싶지 않으면, 하다못해 위 카메라 검사를 한 달에 한번만이라도 받아 주세요. 그리고 수술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라고 말했다



간동맥 조영촬영사진

간우엽 하부에 혈관만을 간암종양이 선명하게 보임

그 후 의사는 약 1년간 환자를 진찰하며 암이라고 의심되는 궤양을 위 카메라로 추적했다. 그동안에 궤양은 두 번 정도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과정을 거쳤지만, 3센티미터 정도의 점막 변색부는 조금씩 표면이 파손되는 게 눈에 띄었다. 정확히 1년 뒤 그 환자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그 환자의 위에서 절제한 것의 조직을 살펴본 바, 지름이 4센티미터의 둥근 면적을 지닌 조기 세포였고, 더구나 그 중심부 궤양은 양성 점막 세포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제 궤양이 암으로 전이한다고 하였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암이 궤양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사례가 점점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가 보고된 이후 궤양의 암화가 아니라, 암의 궤양화인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다.

암이 존재하는 장소에 이차적인 암이 발생하고, 그 궤양은 양성 궤양과 마찬가지로 치료되거나 재발하는 것으로, 만일 양성 궤양에서의 암화가 있더라도 극히 적다는 것에 전문가는 의견을 모았다.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에 걸쳐 위궤양의 예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위궤양 환자에게서 발생한 위암의 수는 보통 건강한 사람의 암 발생률과 전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이 발생한 사람도 위궤양 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장 클리닉』(태웅건강연구회 편, 김경희 감수)에서 인용